

지역 소식통

정읍시, 교통공원·천변
누리공원 정비사업 착수

정읍시가 노후 공원을 시민 중심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지난 27일 교통공원 야외무대에서 '교통공원·천변누리공원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목 정비와 관목 식재를 통해 공원 경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길 조성, 시니어 맞춤형 운동기구 설치, 녹음형 휴게쉼터 조성, 공원 간 보행 동선 개선, 천변누리공원 내 시설물 도색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조명 교체와 해충 방제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공원과 천변누리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완만한 보행로를 신설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 중동 사태 에너지
위기 극복 수소가격 동결

부안군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소충전소 2개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농어촌버스(수소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제 유가 및 대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 수소충전소는 일평균 60여대(승용 23대, 버스 15대, 정소차 2대)의 수소차가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가격 동결 조치로 라농어촌버스는 노선 단축이나 배차 간격 증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초록 청보리밭 속 봄의 향연

고창 청보리밭 축제, 내달 18~5월 10일 개최... 주차요금 환급·각종 체험 풍성



고창군이 오는 4월 18일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슬로건으로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막을 올린다.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 펼쳐지는 초록 물결 속에서 5월 10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사잇길 걷기' 체험(1인 3000원·고창군민 무료)이 올해 처음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트랙터 관람차(왕복 8000원·편도 5000원)를 타고 가로수 숲길과 호랑이왕대밭을 둘러보는 코스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개막식은 4월 18일 오후 2시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공연과 보리떡 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농악퍼레이드를 선두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로 봄의 문을 연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지주식 김, 화장품으로 변신

고창군-클라우드, 고창 김 활용한 화장품 판로 확대 맞춘
'우리숲 판테놀 김 크림'... 올리브영 입점·수출 활발



고창군과 국내 뷰티업체인 '클라우드(브랜드명 우리숲)'가 손잡고 고창 김을 활용한 화장품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수와 손진수 클라우드 대표, 김현술 심원 만월어촌계장 등이 참석해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지주식 김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출시 관련, 국내외 판로를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지역 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는 고창 지주식 김을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심원 만월어촌계는 고품질 지주식 김 원물의 안정적인 납품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숲 판테놀 김 크림'은 고창 지주식 김에서 추출한 천연보습인자(NMF) 아미노산은 아기 피부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성분으로, 피부 장벽 개선과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라우드는 브랜드명 '우리숲'으로 올리브영에 입점 완료했으며, 일본, 홍콩,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클라우드는 고창군의 지주식 김을 활용하여 화장품 크림과 팩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창의 우수한 수산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통합돌봄 시행 맞춰... 촘촘한 돌봄망 구축 나서

주민도움센터 명칭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변경...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기존 주민도움센터의 명칭을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생활 민원 처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돌봄지원센터는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부설 기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복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복지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센터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신규 대상자 285가구를 발굴하고 총 3015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 유형은 시장 보기 1253건, 물품 배달 648건, 일상생활 지원 377건, 약 처방 대행 184건, 전화 상담 144건, 민원 업무 대행 98건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중심을 이뤘다.

현재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보기와 물품 전달, 약 처방 대행, 민원 및 은행 업무 대행, 인부 확

인과 및 서비스, 가전제품 수리 접수 대행, 점등 교체 등 소규모 수선까지 일상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센터(063-538-1966)로 전화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지역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소방관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주의"

고창소방서, 군민 피해 예방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대리구매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소방관을 사칭한 뒤 음식점이나 업체에 연락해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결제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유도하는 만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물품 구매를 대행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명의로 진행되는 모든 계약 및 구매는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량 주문 후 선결제 요구 △특정 업체 물품 대리 구매 요청 △개인 계좌 입금 유도 등의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기센터, 농번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

4-6월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오는 4~6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근무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요일 근무는 본격적인 모내기과 양파·마늘 수확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인들이 휴일

에도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 밀착형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토요일 운영은 상서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46종 366대)에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안군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희망 농업인은 전화(063-580-3981~3)로 예약, 임대 가능한 농기계 목록과 세부 사항은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https://buan.amln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정읍시가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30일부터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 지역 사회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 출입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정읍시청 본청을 비롯해 해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와 종사자 차량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